



두 번째 회 우주보다 깊고 넓은 미륵부처님의 눈

어느 날 내가 다니는 절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방생법회를 가게 되었다. 그 방생법회에서 법주사 스님이 말씀 하시기를 “지금쯤 석가모니부처님 시대지만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오시는데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용화세계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설법을 하였다. 그 설법을 들으니 나도 그 미륵부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서원(誓願)이 세워지는 것이었다. “미륵부처님, 당신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미륵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니 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용화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발원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도인이 나왔으니 승리제단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러다가 1985년쯤 신정 남해 금산 보리암에 정초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서울에서 오신 보살님과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보살님은 직업이 의사였는데, 예전에 회화를 다녔다고 한다. 진리가 절에 있는 것 같아서 진리를 찾으러 절에 왔다고 하는데, 나하고 이야기 가 잘 통했다. 나도 대광명, 대지혜, 대길상을 추구하였지 복을 달라며 기도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친밀감이 들어 우리 집 전화번호와 법명을 알려주면서 마산 오시면 꼭 만나게 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그 후 세월이 1~2년 정도 흐른 후 어느 날 그 보살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보살님은 진짜 진리가 나왔는데 당신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전화했다고 한다. 마산에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니 연락이 오면 만나보라고 하였다. 그 전화를 받은 다음날 마산제단 책임승사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진리가 나왔으니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가볼게요”라고 답은 했으나 계속 바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였다.

또 얼마 후에 마산제단 책임승사가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도를 이룬 분이 부산에 오신다고 하니 와서 같이 가보자”고 하여 마산제단에 가서 비디오로 한 시간 예배를 보았는데 절하고 분위기가 달라서 거부감이 들었다. 거부감은

들었지만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았다. 예배 후 책임승사님 말씀이 “오신 김에 시간을 내서 부산에 가면 도인(道人)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여 대지혜와 대광명을 찾을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감에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승합차에 타고 부산으로 가는데 톨게이트를 지났을 때 좁 좁 갑자기 갈등이 생기는 것이었다. ‘바쁘는데 뭐 하러 부산까지 가나. 여기서 내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리저리 생각한 후에 ‘나하고 안 맞으면 내일부터 안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나중에 승리제단에 나오려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승사님이 이야기 해주어서 알게 되었다. 그때 내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살면서 두고두고 생각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미륵부처님의 눈에서 우주보다 더 크고 깊음을 느꼈다

드디어 봉고차에서 내려 부산제단으로 들어갔다. 부산제단 미륵부처님실 문 앞에서 책임승사님과 마산 성도님들과 함께 미륵부처님이 도착하시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책임승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드디어 미륵부처님께서 도착하시고, 집무실에 들어가시려고 문 앞으로 걸어오시다가 내 앞에서 잠깐 멈추어 서셨다. 그리고는 내 눈을 뻔히 바라보셨다. 나도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눈 안이 우주처럼 깊고 깊어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었다. ‘범상치 않은 눈이네’ 하며 제압을 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예배시간에 미륵부처님께서 하시는 설법이 교화사이라 진리가 아닌 것 아닌가 하였으나, 미륵부처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마산제단 승사님이 21일만 알아보면 된다고 하여 21일 정도는 알아보자. 어차피 진리를 찾아다니는 거니까 그 정도 시간 못 내겠나’ 하여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한편 마산제단에 가기 전에 나는 남편한테 마산제단에 가게 된 연유를 자세히



말해주었다. 보리암에 가서 어떤 보살을 만났는데 그 보살이 좋은 도가 나와서 어디를 가보라고 하여 간다는 것을 다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단 나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슬향취가 갑자기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였다. 미륵부처님은 백합화 향취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맡게 되어서 신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 시점에서 향취를 맡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바로 뒤에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너 어디 간다는 데 절대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 미륵부처님께서 이슬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남편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간다 안 간다는 말을 안 하고 두무뎡술하게 지혜롭게 넘겼다.

21일 기간 중 설교 시간에 나오 모르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눈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진 죄가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니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승사님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자신의 죄가 타는 냄새라고 했다. 미륵부처님의 불이 내게 임하여 죄를 태우기 때문에 나는 냄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 체험을 하면서 21일이 지나고 계속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륵부처님의 말씀에서 도무지 흥과 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임승사님이 더 알아보라고 하기에 계속 제단에 나오게 되었다.

장마를 막는 미륵부처님

이분이 미륵부처님인지는 몇 개월 동안 제단에 나오는 동안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미륵부처님께서 태풍을 막고 여름 장마를 안 지게 하며, 공산주의를 없애 버린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어느 경지에 이르는 도인(道人)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 별 의심이 없었다. 사실 내가 절에 다닐 때 도반(道伴)들끼리 “요즘 참 이상하다. 기상이변이 생겼나. 왜 장마가 안 오지. 비가 와야 하는데 참 이상하다. 무슨 조화냐” 그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다. 옛날에는 장마가 시작했다 하면 비가 주야장창 왔다.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고 이불과 옷들이 눅눅해져서 살기가 괴로웠다. 장맛비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장마철이면 자각자각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런데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던 즈음에 이상하게 장마가 안 와서 무슨 조화냐 했던 것이다.

그 의문이 여기 승리제단에 와서야 비로소 풀리게 되었던 것이다. 장마를 막는 장본인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셨던 것이다.

나는 아득히 먼 후일에 미륵부처님을 만날 수 있겠거니 하고 살다가, 이렇게 뜻밖에 미륵부처님을 만나니 정말 꿈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뻐했다. 비로소 내가 그토록 찾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너무 감사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미륵부처님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셨다. 참 행복이 나왔다. 이 굉장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미륵부처님께서는 행복을 가로막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대상을 이기는 방법을 설법해 주셨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대상을 이기는 신무기를 개발하신 것이다. 경천동지할 놀라운 일이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 행복의 열쇠를 내 손에 지어주는 분을 내가 만난 것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도인들이 찾아 해매도 찾지 못했던 그 열쇠를 영언할 수 없는 연단을 이기고, 미륵부처님께서 찾아서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선지성현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그 비밀의 방법을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일심으로 전도를 했다.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은 바로 절에 같이 다닐 때 장마가 왜 안 지지 하면서 의문을 이야기했던 도반이었다. 그 친구는 몇 마디 이야기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었다. 그 친구는 자기 남편을 전도해 나갔고, 그 남편은 또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나오게 하니,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다. 마산제단 식구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미륵부처님께서는 나를 부인회장으로 임명하였고, 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그 즈음 미륵부처님은 당신이 계시는 본부제단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마산제단 부인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미륵부처님께서는 본부제단을 지으시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듣자니 안타까웠다. 나는 내 모든 정성을 기울이다가, 마산 성도님들 중 절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시주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다. 그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하여 본부제단 건축현금을 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본부제단 준공식

을 마친 다음날 주님께서 정성을 아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다. 몸이 땅위를 걷는 것 같지 않고 뚱뚱 떠다니는 것 같았다.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본신으로 내 앞에 나타나신 미륵부처님

그 후 미륵부처님은 한글 사기 권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시게 되었다. 미륵부처님께서는 무단히 죄도 없이 옥고를 치르시고 계시니 빨리 모시고 나와야겠다는 마음대로 안 되어 너무 기가 막혔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는 가운데 죄도 없으신 미륵부처님이 옥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의 마음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만일 우리들이 마음공부가 잘 되어서 의인들이 많이 나왔다면 미륵부처님께서 이런 일을 안 당하셨을 텐데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나 또한 의인이 되지 못한 것에 자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라도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미륵부처님께서 가족도 버리고 밀실로 들어가셨는데 나는 가족에 매어 있어서 공부가 안되나 해서 가족의 마음을 풀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남해 보리암에 갔다. 거기서 속세의 인연을 끊으려니까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났다. 인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그렇다면 인연을 안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끊는 것은 맺는 것의 몇 십 배의 고통이라고 느껴졌다.

그날 밤새 기도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 산 정상 산책로로 나갔는데 미륵부처님의 분신(分身)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어머, 우리 미륵부처님이 오셨네’ 하고 의심하는 순간 미륵부처님께서 는 획 사라지셨다. 미륵부처님의 분신을 보았다는 설렘과 감사의 마음으로 암자로 돌아왔다. ‘이때에 왜 미륵부처님은 내게 오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제는 가족을 버리면서 도를 닦을 때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다. 그 날 오후에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김희성 권사 / 마산제단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13년 전 연평해전 때에 있었던 일

어느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막내아들이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기에 다음날 주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니 알았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다. 똑같은 내용이었다.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려달라고요? 하니 이를 후면 입대한다고 말하기에 초조한 부모의 심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려는 마음인가보다. 라고 생각하여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알고 있는데 뭘 또 그러냐 하시는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듣고 계셨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 연평도에서 군에 잘 적응하고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6월 어느 날 휴가 나온다는 연락도 없이 저녁 10시에 갑자기 집을 열고, ‘엄마’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언니는 깜짝 놀라서 연락도 없이 웬일로 집에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일인데 갑자기 중대장이 집으로 가라고 다그쳐서 “중대장님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유 대지 말고 빨리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지 못 할까”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내쫓으려는 것이다. 쫓겨서 집으로



오는 차안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중대장님이 아무래도 귀신한테 씌워서 다 그 친 게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휴가나 외박을 나오면 누나와 친구들이 있는 서울 집으로 가는 녀석인데,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온 것 보면 아무래도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탈영한 것이 아닌가 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자기

를 못 믿으시냐”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마음 편히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 토요일 오전 10시 연평도 연평해전이 벌어진 것이다. TV를 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쫓겨서 어제 저녁에 집에 오지 않았으면 저 배를 내가 타고 전쟁을 했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부대로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부

대로 복귀하겠다”고 하니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일주일 간 집에 있다가 갔다고 한다.

주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도 주님께서 젓가락으로 집어서 전평터를 피하게 해 주신 것이다.

주님은 변신의 능력도 있으시고, 분신의 능력도 있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중대장의 마음을 움직여 빨리 집으로 피하게 해 주신 것이다.

언니가 가족들 반대 때문에 혼자 주님을 믿고 가는 처지라 주님께서 젓가락으로 집어서 그 전평터를 피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릴 수도 없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 온 가족이 구세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전평터에서 아들을 보호해 주셔서 집으로 보내신 분이 구세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는 것이다. 언니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하루 종일 흘렸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13년 전 그날인 연평해전을 영화화하여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 오늘따라 무척 당신이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김정순 승사 / 본부제단

제2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연평해전’을 보고 많은 관객들이 바다를 지키는 해군들의 전우애와 책임감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영화는 21일 현재 550만 관객을 넘어섰다.

연평해전은 한국과 터키가 월드컵 3, 4위전을 벌이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서해 연평도 NLL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 684호가 대한민국 잠수리 357호 고속정을 기습 공격한 해전이다. 북한군의 기습 함포 공격을 시작으로 상호간 치열한 격전이 약 30분간 진행되었는데 우리 군의 피해는 6명 전사, 18명 부상, 잠수리 357호 침몰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영화에서 우리 해군은 월드컵 열기에 들뜨지 않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힘든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속정 정장으로서 부하들을 리드하며 철저한 군인정신으로 몸쳐진 모습으로 그려진 ‘윤영하’ 대위,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몸으로 조종간을 놓지 않은 헌신적인 조타장 ‘한삼국’ 하사, 부상당한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치명상을 입고 전사한 의무병 ‘박동혁’ 상병 등이 주연이다. 이들이 긴박한 해전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다.

박동혁 상병을 치료했던 장준봉 전 국군수도통합병원 군의관은 박 상병의 몸에 박힌 수많은 파편을 보면서 의무병이었던 박 상병이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얼마나 고투를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문했다(2015. 7. 9. 중앙일보)고 한다. 우리는 그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보내야 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